



## 한덕수 국무총리, 사흘연속 잼버리 현장점검 후 깨알지시

-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(일) 사흘 연속 전북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현장을 찾아 긴급지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,
  - 김현숙, 이상민, 박보균 공동조직위원장에게 "끊임없이 현장을 돌아보며 참가자들의 의견을 듣고 문제점을 파악해 확실히 해결하라"고 지시했다.
- 한 총리는 4일과 5일에 이어 이날도 영내 활동중인 참가자들에게 "불편한 점이 없느냐"고 묻고 "고칠 점을 말해달라"고 했다.
  - 조직위가 안내하는 편의시설만 둘러보지 않고, 참가자들이 지적해준 곳을 중심으로 영지 외곽에 있는 시설을 무작위로 불시 점검했다.
  - 한 총리는 김현숙 위원장, 최창행 사무총장 등 조직위 관계자들과 전라북도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긴급지시 이행 상황을 묻고,
    - 총리가 현장점검한 내용과 답변이 다른 경우 "현실과 일치하지 않는다"고 지적하고, "책상에 앉아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 다시 조치한 뒤 보고하라"고 했다.
- 한 총리는 이날 "중앙정부가 본격 대응하기 시작한 뒤 문제점이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"면서, 다음 사항을 조직위에 추가로 지시했다.

-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 청결 유지를 위해 긴급 추가 투입된 인력 약 700여명에게도 충분한 물을 공급하고 휴식을 보장할 것
  - 영외활동버스 배차 간격을 줄여 참가자들이 길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할 것
  - 영지내 쓰레기 집하장을 늘려 참가자들의 불편을 덜고, 모인 쓰레기를 수시로 수거해 청결한 환경을 유지할 것
  - 팔토시와 선크림, 얼음과 생수 등을 충분히 조달해 수시로 추가 공급할 것
  - 길안내 표지판과 소규모 물놀이장을 추가 설치할 것
  - 잼버리대회 폐영식이 끝난 뒤 바로 귀국하는 대신 서울, 부산 등 국내 다른 지역을 여행하려는 참가자들에게는 인천공항까지 가는 기존 교통편 외에 다양한 대안 교통편을 마련해 줄 것
- 아울러, 잼버리대회가 중반에 접어들면서 참가자들의 영외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점과 관련해 한 총리는 이상민 위원장(행정안전부 장관)에게,
- 참가자들이 영외활동을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치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유의하라고 지시했다.
- 한 총리는 또한 이날 오후경 식약처장에게 더운 날씨에 식중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, 유통, 판매단계에서 위생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.
- 이날 한 총리는 세브란스병원 의료진 등 자원봉사자들을 만나 격려하고 세계잼버리대회 성공을 위한 민간의 응원에 감사를 전했다.

담당 부서	사회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	옥선경 (044-200-2325)
		담당자	서기관	김윤경 (044-200-2332)
		담당자	사무관	김정훈 (044-200-2327)